

긴소쿠치(성역)

배례전 뒤쪽에 있는 이 출입금지 구역은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이자 후쓰노미타마 검이 안치된 곳입니다. 이 신검은 후쓰노미타마의 신체(神體)이자 이소노카미 신궁의 중심이 되는 유물입니다. 이소노카미 신궁은 이 신을 모시기 위해 창건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 구역은 ‘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땅’이라는 뜻인 ‘긴소쿠치’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
고대 기록에 따르면 스진 천황이 기원전 91 년경 후쓰노미타마 검의 봉헌을 명했다고 합니다. 그 후 검은 후루카와 강 근처 이소노카미후루의 다카니와라고 불리는 곳에 묻혔습니다. 그리고 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로 나무를 심었습니다. 그 후 그 땅은 이소노카미 신궁의 긴소쿠치(성역)이 되었습니다.

약 2000 년 후, 간 마사모토(1824~1897)라는 신참 고위 신관이 이 성역에 흥미를 느꼈습니다. 그는 정부에 고고학적 발굴 조사 허가를 신청했고 1874 년에 몇 가지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. 그중에는 후쓰노미타마 검으로 추정되는 둥근 칼자루의 철검도 있었습니다. 1913 년에 이 신검은 성역으로 옮겨져 지금도 그 장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.